‘흥행실패’ 인사청문회 민주당 고민

김진표 원내대표 데뷔작 불구 ‘결정적 한방’ 없어

‘낙마 0순위’ 유영숙 내정자 리콜도 물 건너 가

5·6 개각에 따른 입각 대상자 5인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26일로 막을 내리는 가운데 인사청문회가 국민의 관심을 받지 못하면서 민주당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청문대상 인사들을 ‘고소영(고려대·소망교회·영남 출신) 비리 5남매’로 규정해 “전원 리콜하겠다”며 초반부터 기세를 올렸지만 국민 여론의 조명을 받지 못하면서 자칫 ‘태산명동서일필(泰山鳴動鼠一匹)’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 것이다.

더욱이 이번 청문회는 김진표 원내대표 취임 후 데뷔작인데다 6월 국회 내 여야 주도권 다툼의 시험대라는 점에서 민주당이 느끼는 심리적 압박의 강도는 더 클 수 밖에 없다. 이전 인사청문회에서 고급 정보를 앞세워 이슈를 주도했던 박지원 전 원내대표와 비교될 수 있는 점도 김 원내대표로서는 큰 부담이다.

이날까지 민주당은 청문기간 내정자별로 각종 의혹을 들춰내며 낙마 여론을 유도하기 위해 안간힘을 썼으나 ‘결정적 한 방’을 날리는 데는 실패했다는 평이 일반적이다.

무엇보다도 정치권의 이목이 한나라당 신주류의 ‘좌클릭’ 행보를 둘러싼 여권 내부의 노선갈등에 집중되면서 청문회 자체가 상대적으로 관심권에서 밀려났다. 청문대상 가운데 정치인 출신이 없는 점도 흥행에 걸림돌로 작용했다.

또 장관 내정자의 경우 본회의 인준을 거치지 않기 때문에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하면 현실적으로 이를 막을 수단이 없는 형편이다.

특히 민주당은 애초에 유영숙 환경부 장관 내정자를 ‘낙마 0순위’로 지목했지만 ‘물 건너 갔다’는 분위기가 팽배하다. 소망교회 헌금 논란과 배우자의 대기업 고액급여 수령 의혹이 도마 위에 올랐으나 정작 청문회에서는 유 내정자가 완전히 몸을 낮추면서 차분하게 답변을 하면서 전투력을 잃고 낙마 분위기를 이끌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더욱이 환노위원장을 빼면 민주당 의원이 3명에 그쳐 ‘수적 열세’라는 근본적 한계도 있었다.

한 초선 의원은 26일 “유 내정자가 조곤조곤 답변하다 추궁이 들어가면 울먹이는 고단수의 전략을 구사하다 보니 공격적으로 몰아붙이지 못한 측면이 있는 것 같다”고 토로했다.

때문에 민주당은 서규용 농식품위 장관 내정자를 낙마시키기 위해 전열을 가다듬고 있으나 여권에서 강력히 대응할 태세여서 이마저 쉽지 않아 보이며 다른 장관 내정자들에게도 결정적 하자를 찾아내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때문에 김 원내대표는 이날 고위정책회의에서 청문대상 전원을 ‘부적격’으로 낙인찍으며 막판 전열을 가다듬었다.

한편,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위원장 김부겸 민주당 의원)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박병대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심사경과보고서를 여야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여야, 같이 앉게 해주세요” 민주당 손학규 대표가 26일 서울 명동성당 꼬스트홀에서 ‘엄마 아빠가 되어주세요’라는 주제로 열린 제4회 생명포럼에 참석해 여야가 함께 앉겠다며 염수정 주교에게 얘기하며 함께 웃고 있다. 왼쪽은 한나라당 황우여 원내대표. /연합뉴스

다운계약서·인사청탁 공방

권도엽·이채필 인사청문회

국회 국토해양위원회의 26일 권도엽 국토부 장관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야당 의원들은 다운계약서 작성 의혹 등을 제기하며 공세에 나선 반면 여당 의원들은 현안 및 정책 질의에 집중했다.

민주노동당 강기갑 의원은 “권 내정자는 실거래가 신고의무가 없는 빌라여서 다운계약서를 썼다고 변명한 바 있는데, 주택거래 신고제를 주도한 정책 책임자 출신으로서 장관직을 수행할 자격이 없는 것 아니냐”고 몰아붙였다.

권 내정자가 국내 1위 로펌인 김앤장의 고문으로 근무한 경력도 도마에 올랐다.

민주당 강기정 의원은 “김앤장이 법제처 입찰 제안서에서 권 내정자를 ‘국토부 관련 유일한 자문위원’이라고 소개했고 제안서 평가에서 가중치를 받아 수주에 성공했다”면서 “이런 방식의 ‘전관예우’를 근절하려면 스스로 사퇴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반면 한나라당 의원들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부채 문제와 전·월세난 등 국토부 현안과 정책에 관한 질의에 집중했다.

권 내정자는 김앤장에서 고문으로 근무한 것과 다운계약서 작성 의혹과 관련, “사려 깊은 처신을 하지 못했다”며 고개를 숙였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이채필 고용노동부 장관 내정자에 대한 청문회에서는 인사청탁성 금품수수 의혹과 유성기업 공권력 투입 등이 거론됐다.

강성천 한나라당 의원은 “부하직원이 건넨 뇌물을 받았느냐”고 따졌고 홍영표 민주당 의원은 “당시 민원실에 있던 직원은 ‘이 후보자가 돈을 돌려주는 것을 못 봤다’고 하던데 어떻게 증명 하겠냐”고 질타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은진수 감사위원 사표

부산저축銀 비리 의혹

부산저축은행 비리와 관련됐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은진수 감사원 감사위원이 26일 양건 감사원장에게 사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은 감사위원이 해당 기관장에게 사의를 표해서, 해당 기관장이 사표를 행정안전부에 보낸 상태인 것으로 안다”면서 “행안부가 이를 청와대로 보내 대통령이 수용하면 절차가 완료된다”고 말했다.

검사 출신인 은 위원은 지난 2007년 대선 당시 이명박 후보 캠프에서 법률지원단장을 지냈고 일명 ‘BBK 사건’을 변호하기도 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는 법무행정분과 자문위원으로 일했다.

검찰은 은 위원이 부산저축은행그룹의 청탁을 받고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에 대해 수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정가 라운지

‘국민포럼 러브 코리아’ 29일 창립

김정길 전 행정자치부장관의 대선 외곽조직 중 하나인 ‘국민포럼 러브 코리아’(이하 국민포럼) 창립식이 29일 광주 여성발전센터 대강당에서 회원 1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다.

이날 창립식은 국민포럼 사무총장 오기만의 경과보고와 반명환 임시 의장의 진행으로 정관 제정 및 공동대표 등 임원을 선출 등의 순으로 진행된다.

또한, 최영환 전 광주 YMCA이사장, 이윤자 광주여성재단이사장, 임현모 전 광주교육대학교 총장 등의 축사도 이어진다. 창립식에 이어 국민포럼 명예고문을 맡고 있는 김정길 전 장관이 ‘2012년 대선과 한국의 미래’란 주제로 특별 강연을 벌인다.

김동철 의원 28일 출판기념회

민주당 김동철(광산 갑) 국회의원의 ‘정치는 더 큰 경제’ 출판기념회가 28일 오후 4시 호남대학교 광산캠퍼스에서 열린다. 김 의원은 저서 ‘정치는 더 큰 경제’는 대한민국의 어제와 오늘, 그리고 미래, 민주주의와 남북관계·국가균형발전·기부문화·사법개혁 등 국가적 주요 과제들을 해결하는데 필요한 철학과 정책 방향 등을 제시했다.

김 의원은 “그동안 정치인 김동철이 어떤 정치를 할 것인지에 대해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았는데, 이 책은 그러한 주변 분들에 대한 고백과 요청이며, 아울러 이번 출판기념회를 성찰과 소통의 기회로 삼고자 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출판기념회에는 손학규 대표의 부인 이윤영 여사와 박지원 전 원내대표, 이낙연 전 사무총장을 비롯한 광주·전남지역 국회의원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광주시의회 5·18기록물 등재 환영

광주시의회 윤봉근 의장을 비롯한 전체 의원들이 5·18 광주 민주화운동 관련 기록물의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와 관련 26일 환영 성명서를 내고 “147만 광주시민과 함께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

의원들은 성명을 통해 “5·18 기록물의 세계 유산 등재는 한국 민주화의 초석이 된 광주 5·18을 세계가 인정한 것으로, 민주화 운동이 거세게 일고 있는 중동과 민주화를 갈망하는 동남아시아, 중남미 등 세계 민주화 바람에도 큰 힘을 실어 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시의회는 광주시와 함께 자랑스러운 역사적, 정신적 자산인 5·18 사적지와 5월 대동정신 등을 온전히 후손들에게 물려줄 수 있도록 시민들의 의견을 모아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보존과 계승대책을 수립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남대 헌혈의 집 존치 촉구 결의안

광주 북구의회는 26일 본회의에서 전남대 헌혈의 집 존치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구의회는 “1997년 문을 연 전남대 헌혈의 집은 혈액 수급량이 광주·전남에서 2위를 차지할 정도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며 “전남대는 국민의 세금으로 세워진 국립대학으로서 정체성, 지역사회 요구를 고려해 폐쇄방침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민주 “반값 등록금, 5000억 추경부터”

한나라 “추경안, 등록금 문제와는 별도”

민주당은 26일 대학생 ‘반값 등록금’ 이슈와 관련, 여야정 협의체를 조속히 구성하고 5000억원 규모의 추가 경정예산과 5가지 관련 법안을 뜻하는 ‘5·5 대책’의 6월 임시국회 처리를 한나라당에 요구했다.

김진표 원내대표는 이날 고위정책회의에서 “이명박 한나라당 정권이 고비가 지나가면 언제 그랬냐는 식으로 되돌아가는 행태를 반복하면 앞으로 콩으로 메주를 쑨다고 해도 믿지 않을 것”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박영선 정책위의장은 ‘5·5 대책’ 관련 법안으로 ▲등록금상한제도입법 ▲취업후상환제특별법 ▲장학금 확대법 ▲지방교육재정확대법 ▲교육재정확대법을 제시했다.

한편, 한나라당 황우여 원내대표는 이날 등록금 부담 완화를 위한 내년도 예산 반영과 관련, “조 단위는 필요하다. 1조원 이상”이라고 밝혔다.

황 원내대표는 평화방송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하고, 야당의 추경 편성 주장에 대해서는 “등록금 문제와 별도로 생각하는게 옳다”고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그는 6월 국회에서 ‘취직후 등록금 대출상환제’, ‘등록금 인상 상한제’를 통과시켜야 한다는 민주당 주장에 대해서는 “시행 중이지만 개선할 부분이 없지 않다”면서 “등록금 부담 완화 이외의 부수적인 다른 부분은 함께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교과위가 뭐길래…’ 손학규 난감

국회 상임위 결정 앞두고 빈자리 없어

4·27 재보선으로 9년 만에 국회의원 배지를 단 민주당 손학규 대표가 상임위 배정을 놓고 깊은 고민에 빠졌다.

26일 손 대표 측에 따르면 다음달 1일 임시국회 개회 전에 상임위를 결정해야 하나 복잡한 상황이 겹치면서 쉽게 결단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손 대표가 희망하거나 권유받고 있는 상임위는 교육과학위, 보건복지위, 기획재정위, 외교통일위 정도. 이 중 교과위는 김진표 원내대표가 강력히 추천하고 손 대표가 희망하는 상임위로 전해진다.

차기 대권을 노리는 손 대표에게는 대학등록금·공교육·무상급식·입시정책 등 서민·중산층의 ‘표심’에 파급력이 큰 교육이슈를 선점할 수 있는 기회를 잡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아직까지 민주당 소속 교과위원 중 ‘양보’ 의사를 밝힌 의원이 아무도 없어 손 대표 측이 난감해 하고 있다.

김영진 의원은 과학비즈니스벨트의 충청행(行)에 반발해 단식투쟁까지 벌인 상황이고, 지역구 진출을 노리는 김유정·김상희 의원은 지역 현안 때문에 ‘전보’를 거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손 대표가 교과위행을 끝까지 고수할 경우 원내대표단이 나서 국회 규정을 바꿔 교과위 정원을 늘릴 수밖에 없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1960년,4.19 의거 때 한국일보 지방판에 실린 기사를 찾습니다.

1960년 4월 20일~4월 26일 사이에 한국일보 광주·전남 지방판에 다음과 같은 기사가 실렸습니다.

김주열 열사의 시체가 발견되자 전국에서 정부에 대항하는 열기로 국토가 들끓었습니다.
그 때 광주에서도 시내 고등학교 학생들이 전남도청으로 집결하여 데모를 했습니다.
마침내 전남도청 간부와 각 고등학교 대표들 간의 면담 시간이 주어졌습니다.
유은학원총동문회장을 역임한 박석남 회장도 당시 광주상고 대표로 도청간부와 면담했습니다.
한국일보 기자가 박석남회장에게 면담내용을 인터뷰 한 후 신문에 실었습니다.

4.19 의거때 **박석남회장**의 이름이 들어간 기사를 가지고 계신 분이 연락 주시면 **후사**하겠습니다.

연락처 : (주간) 02-2244-4447
(야간) 010-4612-3567

'11 재광 진도군 향우회 정기총회

○ 일 시
2011년 5월 28일 15:30 - 20:00
○ 장 소
방림초등학교 체육관
○ 대 상
400명 (내빈, 향우회원, 초청가수 등)
○ 행사내용
• 식전행사 : 진도군립 예술단 공연 (북춤, 남도민요)
• 의식행사 - 제1부행사 : 개회식
• 식후행사
- 제2부행사 : 만찬(현지장소뷔페)
- 공연 (연예인 초청 : 박진도)
- 품바타령
- 읍·면 노래자랑 및 장기자랑
- 행운권 추첨
- 폐 회

○ 추진위원 ○
• 재광 진도군 향우회장 한기민 010-9458-1896
수석 부회장 한찬권 010-7156-4363
상임 부회장 박성호 010-3601-0989
상임 부회장 김정운 010-9862-4708
• 진도읍 향우회장 김복남 011-9603-9270
• 고군면 향우회장 한진옥 011-9667-8041
• 군내면 향우회장 박상진 017- 605-5549
• 의신면 향우회장 박상열 010-2409-1548
• 임회면 향우회장 곽봉일 011-2616-8846
• 지산면 향우회장 최정규 010-3468-7741
• 조도면 향우회장 김채호 011- 609-1779

금산공인중개사
상무신도심 상·업·용·지 (C1지역) 매매
■위치
- 상무병원, 롯데마트 건너편, 삼성화재빌딩옆 (4면 광로변)
■대지면적
- 약 2,850㎡ (180평 분할가능)
■3.3㎡당 매매가
- 1,300만원
■공동 복합 APT 주택가능 (최근 도시계획 변경)
※ 종합병원/상가/오피스 유흥가능
장점
① 주상복합(공동 APT) 가능
② 광로변 최고 광고 효과
③ 롯데마트, 상무병원 건너 삼성화재 옆 최고의 상권
④ 최고의 교통 접근성 (광주시청 접근성과 광-송간 5·18 광로변)
⑤ 상무 신도심 중심 상업, 방화지구
※ 10층 신축건물옆 코너
H.P.011-601-5354

대인동삼일부동산
좋은 자리에 상가 건물을 싸게 사실분
상가 전문소개업체인 저희 부동산으로 오십시오.
광주시내 전지역 상가중 점포가 잘 형성되어 월세가 다른지역보다 더 많이 나오고 앞으로 더욱 좋아질 비젼있는 곳으로 1층 점포가 4~5칸 정도에 점포가 여러칸인 상가를 대표적인것만 골라 물건을 많이 확보하고 있어 일일이 광고하지 못합니다.
사장님께서 중요한 결정을 내리실 때에는 상가전문 소개업체인광주에서 오랜전통 있는 저희 부동산에 꼭 한번 방문 하시면 책임지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FAX)223-1772 핸 011-602-2532 (광주은행 신본점옆, 대인동 소방서건너편)

주인직접거래
고흥바닷가 신축황토집
큰방3개 넓은 텃밭 300평
조망권최고 계곡물흐름
전세 5천만 3천만원
해수절임공장 임대
맑은바닷물
(김치공장도최적)
고흥바닷가 약100평
전세 1천만원
고흥-광주간 고속도로 공사중 약50분거리임
고흥 대전리 해수욕장옆
매실. 유자밭 3천평
당)5만원
(펜션.모텔 부지 최적)
황토주택 짓는법 무료로 배우실 분
문의 ☎ 010-8200-5662

신진공인중개사(임대전문)
서구 매월동 준공업지역매매
▶대지 : 263평 ,신축창고53평 ,사무실 26평
건폐율 60% 유통단지
▶매매가격 : 6억2천만원
고흥군 금산면 토지 매매
▶계획관리지역 :면적-14,000평, 8,500평 (10도 경사, 2차선 도로접)
▶매매가격 : 협의후 결정
남구 송하동 토지매매
▶대 지 : 1500평(6차선 도로접)(700평)
▶자연녹지 : 700평 ▶일반공업지역 : 800평
▶매매가격 : 협의후 결정
북구 동림동 공장(창고)급매
▶대 지 : 538평, 680평, 1000평
▶건 물 : 300평, 200평, 200평
▶높 이 : 8, 9, 10.9m
▶호이스트 :유, 유, 유
▶매매가격 : 협의후결정
문의:☎ 016-644-4265, FAX.523-8558